日, 불교 미술에 매료되다

'나라국립박물관 특별전' 성황
열흘 만에 1만 관람객 이어져
2~4세기 조성된 보살입상 등
205건 불교미술품 전시 눈길

박영빈 객원기자


특별전을 관람 중인 일본인들 . 사진출처=홋코쿠 신문

지난 7월 6일부터 일본 이시카와 현립미술관에서 개최 중인 특별전 '나라박물관의 모든 것: 나라국립박물관 지고의 불교미술 컬렉션'이 현지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을 이루고 있어 화제다. 7월 17일엔 1만명째의 관람객을 맞이하는 등 불교미술에 대한 문턱을 크게 낮추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7월 20일, 일본 '홋코쿠 신문', '미도리구 뉴스' 등의 현지 언론들은 특별전 소식을 집중 보도했다.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 소재한 나라국립박물관은 1895년 개관했다. 특히 나라를 중심으로 한 고찰과 신사들에 봉안된 불교미술품들을 보관, 전시하며 연구하고 있다. 1400년의 역사를 가진 일본 불교미술과 더불어 동아시아 불교미술에 대한 국제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나라국립박물관은 매년 특별전 등을 통해 불교미술의 매력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있다.

2021년 개최된 특별전 '나라박물관 삼매: 지고의 불교미술 컬렉션'은 지금도 일본 문화계에서 여전히 뛰어난 불교미술전이었다고 회자되고 있다.

이번 이시카와현 현립미술관에서 개최된 전시는 2021년도의 전시회에 출품된 불교미술품들 가운데 정수로 꼽히는 작품들과 더불어, 이시카와현과 그 문화권에 전파된 불교문화를 배경으로 하는 유물들이 전시됐다. 국보 8건, 중요문화재 93건을 포함해 205건의 넘는 불교미술품들이 전시되면서 특별전의 이름도 '나라박물관의 모든 것'으로 정해졌다. 이번 전시에서 가장 오래된 전시품은 2~4세기 쿠샨왕조 시대에 조성된 불전도부조와 보살입상. 이 외에도 8세기경에 조성된 불상과 불화 등 나라박물관에서도 공개가 드문 작품들이 대거 포함돼 주목을 끌고 있다.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진행되는 이번 전시는 개최와 함께 큰 성황을 이루고 있다. 60대의 한 관람객은 "평소에도 나라박물관의 불교미술품들을 보고 싶었다. 그런데 그 미술품들 가운데서도 명품만이 엄선되어 온다는 말을 듣고 놓쳐선 안 될 전시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연수차 단체로 관람을 왔다는 한 관람객은 "아름다운 불상들을 사방에서 가까이 감상할 수 있어서 너무나 즐거웠다. 혼자서 다시 한 번 방문할 것"이라며 감동을 표현했다. 이러한 호응에 힘입어 전기 전시의 마지막 날인 7월 28일이 되기도 전에 지난 17일 특별전은 1만명째 관람객을 맞이했다. 1만번째 관람객은 카나자와시에서 온 오카와씨 부부로 사례품으로 도록과 특별전 기념상품 등이 선물됐다.

현립미술관 측은 "곧 시작되는 각 학교의 여름방학에 앞서 주말개관은 물론 야간관람과 조조개관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후기 전시는 오는 8월 25일까지 진행된다.

인도, 불교 유적 숙박시설 전면 개보수

관광부 "숙박시설 개선 통해 관광객 유치"


인도 관광부가 불교 유적 숙발시설 전면 개보수로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사진출처=타임즈 오브 인디아

인도 오리사 주(Orissa State) 자주르 지구에 위치한 불교 유적인 랏나기리(Ratnagiri), 우다야기리(Udayagiri), 그리고 랑구디(Langudi) 등 3곳의 숙박 시설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면 개보수될 예정이다.

타임즈 오브 인디아(the Times of India)는 7월 21일 "관광부가 랏나기리, 우다야기리, 랑구디의 숙박 시설이 파손된 채로 오랫동안 방치돼 유적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관광부는 랏나기리 유닛 개보수에 약 4.57 크로르(한화 약 9억 1000만원), 우다야기리 게스트하우스에 약 1.75 크로르(약 3억 5000만원), 랑구디 게스트하우스에 약 2.62 크로르(약 5억 2000만원)를 포함해 총 18억여 원을 할당할 예정이다.

개보수가 완료되면 입찰을 통해 숙박 시설을 임대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인근의 도로, 급수 시설, 안전 시설 등에 대한 개보수 사업도 추진 중이다. 세 유적의 아름다움을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을 추구해 현지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다.

관광부 관계자는 "목표는 올해 안에 작업을 완료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불교 유적지의 관광 수요를 고취시키고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을 통해 현지 주민들을 위한 인프라 개선 효과도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랏나기리, 우다야기리 및 랑구디는 고대 인도의 중요한 불교 유적이다. 고대에 불교가 번성해 다양한 유물과 유적들이 발굴되고 있다. 특히 불교 수도원들이 대거 위치해 성지로 여겨진다.

박정현 객원기자

印 불교단체, 고대불교 유적지 재조사·보존 촉구

20년째 방치된 5세기경 사원유적
"후손 위해 보존은 사회적 책임"


재발굴이 논의 되고 있는 사원유적 전경. 사진출처=데칸 헤럴드

남인도 벵갈루루 인근에서 20여 년 전에 발굴된 불교유적지에 대해 벵갈루루에 있는 불교 단체가 해당 유적지의 발굴을 재개할 것을 주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마하보디협회(MBS)는 "고대 남인도 불교의 중요한 증거가 되는 유적지가 20년째 방치 되고 있다"며 정부와 대중의 관심을 촉구했다. 지난 7월 21일 인도의 '데칸 해럴드'는 해당 유적지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 보도했다.

남인도 카르나타카주 벵갈루루에서 약 50km 떨어진 도다발라푸르 지구에 위치한 이 유적지는 2000년부터 4년간 두차례에 걸쳐 소규모 발굴작업이 진행됐다. 서기 4~5세기경에 세워진 도시유적으로 밝혀진 이 유적은 특히 거대한 불교사원 유적이 발견되어 학계의 주목을 끌었다.

당시 발굴조사를 이끌었던 전 마이소르 대학 고고학 교수인 묵카이 S. 크리슈나무르티 교수는 "최초 발굴작업에서 거대한 사원 유적이 발견됐다. 유적에선 불탑을 중심으로 한 법당, 요사채가 부속된 승원, 흙벽돌로 조성된 봉헌탑 등 초기 대승불교에 중요한 증거자료들이 대거 발굴됐다"며 유적과 발굴유물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묵카이 교수는 "현재 발굴유물들은 마이소르 대학 박물관에 보관 중이며, 당시 순수하게 대학의 연구자금 지원으로 진행되어 체계적인 전체 발굴조사가 진행되지 못한 채 다시 매립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MBS는 2000~2004년 발굴조사 보고서와 출토 유물들을 바탕으로 유적지에 대한 추가 발굴을 추진하고, 나아가 유적지를 사적으로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벵갈루루 MBS 사무총장인 아난다 스님은 후손들을 위해 이 장소를 보존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스님은 "발견된 유적이 적절하게 보존되지 않았으며, 유적지의 나머지 부분은 파괴될 위험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MBS 측은 주 정부와 인도 고고학 조사국(ASI)에 필요한 조치와 전체적인 재발굴 조사를 촉구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정부와 관련기관에 공식 서신을 보냈다.

지난달 개최된 세미나에서 묵카이 교수는 "유적지의 토양이 매우 비옥하기 때문에 현재 유적지가 있는 땅의 대부분이 농지로 사용되고 있고, 큰 도로들이 복잡하게 놓여있다. 이러한 환경은 유적과 유물에 매우 위험하다"고 발표했다.

MBS 측의 요청과 주장에 대해 현재 카르나타카 주 정부는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현지 소식통들은 전했다. 특히 ASI 고고학 국장인 알록 트리파티 박사는 "추가 발굴을 고려하기 전에 현장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준비하려 한다"며 예비단계에 착수할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언급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한국 이주 태국불자 위한 대법당 건립

천안 왓풋타람 사원
7월 21일 기공법회 봉행



천안 목천에 위치한 태국불교 사원 왓풋타람이 고국을 떠난 지역 태국 이주민과 남방국가 불자들에게 마음의 안식처가 될 대법당 건립을 추진한다.

천안 왓풋타람(주지 프라 찌라삭 스님) 사원은 7월 21일 경내에 대법당을 건립하는 법회 및 기공식을 개최했다.〈사진〉

2023년 1월 문을 연 왓풋타람 사원은 지역 태국 이주민 불자들에게 신행공간을 제공하고자 세워졌다. 왓풋타람 사원은 지역 내 사정이 어려운 이주민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선행을 이어오고 있었다. 하지만 2층짜리 현대식 건물과 컨테이너 하나로 구성된 사원은 정식 법당이 없어 현대식 건물 1층을 임시 법당으로 사용해 왔다.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되는 대법당은 현대식 태국법당으로 이주민들에게 맞는 불교법회를 봉행할 계획이다.

이날 기공식을 증명하기 위해 프라 찌라삭 스님, 프라 팟차라 스님(태국 방콕 왓사켓 사찰), 프라 끼엣띠넌 스님(태국 팟타룽), 프라 탄와 스님(태국 치앙마이)이 참여했다. 한국 거주 태국인 400여 명도 동참해 무사히 법당이 건립되기를 기원했다. 이들은 태국불교 의례에 따라 빨리어 법회를 봉행하고 동참자 전원이 건물의 주춧돌을 다듬는 의식을 진행했다.

유재상 충청지사장

최고급제품 & 착한가격 & 친절상담 & 빠른배송
동호불교물류센터
전국 최대규모 500평 매장에 불교용품의 모든것
다양한 백중 용품 할인행사중!! 상시대기
최고급 제품&착한가격&친절상담&빠른배송
전품목 10%~30%/승복, 가방 50%/가구, 병풍 30% 할인
'매장 방문시 추가 할인 됩니다'
'특별한 할인가격, 더더 할인가격'
백중 용품 미리 준비하세요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 달력도 7월 10일부터 주문받습니다
동호불교용품물류센터는 모든 불교 용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동호불교 검색 NAVER 에 동호불교를 검색하세요.

2024년 동호불교 백중 물품 행사 품목
※ 택배비 포함, 부가세 별도 가격입니다.
2024년 7월 30일 물품 소진시 마감 예정

조상옷
쟈가드	100벌 이상	250,000원
천연펄프	100벌 이상	250,000원
추가옵션		
버선		300원
양말		300원
세면도구	100개 이상	150,000원
메리야스	100개 이상	160,000원
베네저고리	100개 이상	150,000원
종이짚신	150개 1BOX	195,000원
종이신발	50족 1BOX	60,000원

수입양초
밀대	50개	55,000원
돈타래	40개	65,000원
원백	20개	65,000원
홈초원백	20개	70,000원

식물성 양초 국산 최고급
7일초	20개	95,000원
5일초	24개	100,000원
3일초	40개	100,000원

국산초
밀대	50개	65,000원
돈타래	40개	75,000원
원백	20개	75,000원
홈초대 8일초	20개(한박스)	85,000원

파라핀	1.8리터 12병(한박스)	55,000원
지옷	200개(한박스)	140,000원
수자	100개	60,000원
동자동녀	100개	70,000원

대량 구매 시 전화 문의
※칠보 개금 할인해드립니다.(기존 불상 가능)
※불상 조각 조성합니다. (소불7치 500불이상 1불당 12000원)
대표번호 054-762-8200 / 문의전화 010-9748-3366
■ 계좌번호 : 농협 010-2082-2100-89 (임건순)
새마을금고 9003-2562-87257 (임건순)
■ 오시는 길 :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공정길 55-36